

## 방학 중 환경개선 공사 완료

### 새 단장한 골프연습장과, 첨단강의실로 변한 미래관

우리학교는 여름방학 동안 교내 곳곳에서 학교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했다. 특히 미래관 지하 강의실과 공학관 A동 옥상의 골프연습장은 수업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사를 실시했다.

미래관 지하 1층 103호, 104호 강의실은 작년에 공사한 102호(ELC)와 유사하게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김연태(교육개발지원팀) 팀원은 "학생들에게 좀 더 깨끗한 수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강의실을 공사하게 되었지만, 작년 여름 방학 때 공사했던 102호 강의실처럼 예산과 장비가 많이 들어 공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내부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어 교육 환경이 더욱 좋아졌다"고 말했다.

103호, 104호 강의실에는 102호 강의실처럼 LCD모니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활용도가 높은 전동롤스크린과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다. 102호 첨단강의실에는 수업을 녹화하는 카메라가 있어 인터넷으로 녹화된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103, 104호 강의실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8월 초에는 공학관 A동 옥상에 있

는 골프연습장을 공사가 진행되었다. 정도영(시설지원팀) 팀원은 "골프연습장 수업은 기상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업에 방해를 많이 받았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벽을 세우기도 했다. 총 5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창의관과 공학관 B동에 옥상녹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공사를 담당한 구자은(시설지원팀)팀원은 "연구동과 탐구관 옥상처럼 나무와 꽃으로 조성된 휴식공간을 만들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옥상녹화 사업 공사는 9월말에 완공되며 총 1억5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된다. 구자은 팀원은 "공사비는 서울시가 50%로 지원해주었고, 우리학교가 50% 부담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정문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 있던 상징탑과 주차부스가 철거되고 새로이 만들어 졌다. 교육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탐구관과 미래관 전 강의실에 전자교탁이 설치되었다.

김명하 기자 kmh77@hansung.ac.kr



▲ 공학관 A동 골프연습장

▲ 공사 중인 미래관 지하 104호

## 전공 학점, 이제 타 전공 과목으로 채우자

학사지원팀은 2학기부터 타과(부) 과목 전공 인정제(이하 타 전공 인정제)를 신설해, 전공 인정 과목으로 선택된 타 전공을 이수할 경우 자신의 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유정미(학사지원팀) 과장은 "이번 타과(부) 과목 전공 인정제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타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다"며 "학생들의 전공학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타 전공 인정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과가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타 전공 인정제는 학과(부) 교수들의 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타 전공 인정제를 신청할 경우만 가능하다.

이번 학기의 경우 부동산학과, 의료패션산업전공, 회화과, 컴퓨터공학과가 타 전공 인정제를 신청했다. 이들 과의 학생은 수강신청안내표에 게시된 타 전공 과목을 이수할 시, 자기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외의 타 전공을 이수할 경우, 기존 과 같이 교양이수로 인정된다.

유정미 과장은 "해당 학기의 전공 인정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만, 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며 "전공 인정 과목으로 선택된 타 전공을 그 전에 들었어도, 이번 학기에 들은 것이 아니면 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효정(에너지제품 4) 학생은 "앞으로 미디어디자인 컨텐츠학부에도 타 전공 인정제를 신청해 후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의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형신 기자 phstian@hansung.ac.kr

## '취업 아카데미' 단대별 특강으로 변경

한성대 취업전략 아카데미(이하 취업 아카데미)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운영시기를 방중에서 학기 중으로 옮겼다.

운영방식에서도 학생들의 전공에 맞는 단대별 취업 특강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학기 중 운영될 취업 아카데미에 대해 오진형(취업지원팀) 팀장은 "단대별 교수와 상의한 후 각 과의 전공에 맞는 특성화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진형 팀장은 "원래 한성대 취업전략 아카데미는 방중 취업 교육 프로그램이었으나,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가 낮아 결과물이 저조했다"며 "방중 진행하던 취업 아카데미를 학기 중에 실시하고, 학생들의 취업에 보다 도움이 되고자 단대별에 맞춘 취업 특강을 가질 것이다"고 취업 아카데미가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취업 아카데미는 9월 11일 인문대학을 시작으로, 18일 사회과학대학, 25일 예술대학, 10월 8일 공과대학

의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인문대학 취업 특강에서는 구본형(변화경영연구소) 소장, 조성규(프린팅설계연구소) 차장, 추교훈(에드윈빙화사서치코리아) 대표이사 강사로 초빙돼 강의한다.

오진형 팀장은 "이번 취업 아카데미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형신 기자 phstian@hansung.ac.kr

## 2009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식 열려



지난 24일 동대입구에 위치한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에서 총장과 이사장, 각 대학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 후기 한성대 대학원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정주택 총장은 "120명의 신입생들에게 무한한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격려사로 대학원 입학식의 시작을 알렸다.

정 총장은 "대학원 입학은 꿈을 향한 노력을 굳게 다짐하는 것과 같다. 신입생들이 꿈을 이루어, 학교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신용하 이사장은 "무한 경쟁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 지식과 실용적 지식중심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앞으로 실용적인 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학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기에는 일반대학원 30명, 경영대학원 13명, 행정대학원 18명, 예술대학원 13명, 국제대학원 11명,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1명, 부동산대학원 23명, 교육대학원 11명 등 총 120명의 원생들이 입학했다.

전미라 기자 tvxq@hansung.ac.kr

## 등록금 분할납부, '횡수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고'

등록금 분할납부 방식이 학생 설문 조사를 토대로, 기존의 2차 분납에서 3차 분납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조현욱(재무회계팀) 팀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할 납부제도를 위해 횡수 및 납부금액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변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분할납부 제도 변경 이전에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해, 먼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분할납부 제도 개선 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분납차수 및 금액조정'이 62.9%로 가장 높았다.

희망하는 분할 납부 횡수로는 '3회 납부'를 50%가 넘는 학생들이 선택했다.

조현욱(재무회계팀) 팀원은 "기존의 2회 분납 시 납부비용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새롭게 변경된 3회 분납 시 30:35:35로 납부비율이 균등해져 기존보다 합리적인 납

부제도가 되리라고 예상된다"며 바뀐 분할납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바뀐 제도로 인해 그동안 분할납부를 이용하지 못했던 학우들의 수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분할납부는 8월 10일~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학과별 직전학기 등록금원의 20% 범위에서 선발이 이루어졌다.

선발 기준에 대해 그는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5.7%, 신청자 선착순이 30.3%로 나타났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1차 분할납부 기간은 9월 1일~9월 11일까지 총 납부액의 30%, 2차 납부는 10월 12일~10월 16일까지로 총 납부액의 35%를 납부하면 된다. 3차 납부는 11월 16일~11월 20일까지이

며 납부액의 나머지 35%를 납부하면 된다.

전미라 기자 tvxq@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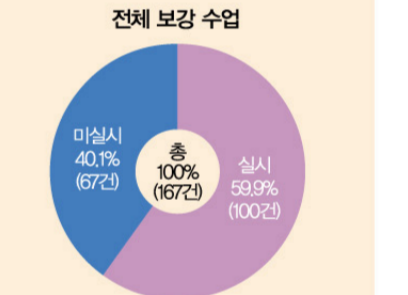
시령	
임	편집국장 김명하(정통3)
사회부	부장 박형신(경영2)
취재부	정기자 이상미(생활 1)
문화부	정기자 이종재(한국어문 1)
면	편집국장 김하늘(한국어문3)
취재부	부장 김병찬(영어영문3)
문화부	부장 임선희(한국어문3)
-인기만료-	

## 1학기 보강수업 40% 미실시

지난 1학기 전체 보강 수업 167건 중, 67건(40.1%)의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지원팀에서 보강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첫 번째 주(6.8~6.12)의 경우 총 69건 중 52건(75.3%), 두 번째 주(6.15~6.19)의 경우 총 98건 중 48건(48.9%)만 보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학사지원팀은 이번 2학기부터 보강 계획서를 보강 실시 전에 제출하고, 보강 결과 보고서를



보강 실시 후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박형신 기자 phstian@hansung.ac.kr

## 신임 프레젠테이션 센터장 엄종석 교수 임명



엄종석(멀티미디어 공학과)교수는 지난 7월 1일자로 한성프레젠테이션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서영운(영어영문학부)교수는 지난 6월 30일자로 한성프레젠테이션 센터장의 임기를 마쳤다.

## 한성대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생각하자, 뛰자, 뭉치자!  
한성대 신문사에서 당차고 열정이 넘치는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분야 : 기자(취재, 사회, 여론, 학술, 기획, 문화부)
- 모집기간 : 9월 31일
- 전형일정 : 전화 후에 직접 방문
- 혜택 : 소정의 활동비와 원고료 지급
- 문의 : 02)760-4186, 016-847-8765

kmh77@hansung.ac.kr

꿈과 열정을,  
진심의 열정을,  
감정들을 해소하라

# ‘의화장’ 수리의 손길이 필요해

## 곰팡이 핀 벽, 낡은 변기가 반기는 의화장



▲ 곰팡이 핀 벽의 모습

▲ 떨어져있는 방충망의 모습

우리학교 수련원인 의화장,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팔당리에 위치한 의화장에 찾아가다. 곰팡이 핀 벽지와 낡은 시계, 뜯어진 방충망 그리고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변기 등이 의화장 관리의 실태를 보여주어 있었다.

의화장을 관리하는 이상원(총무인사팀) 팀원은 “곰팡이를 없애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벽지를 뜯고 건물을 수리해야 하는 큰 공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리할 수 없다. 대신 의화장에 온 학생들에게 곰팡이가 생긴 곳은 사용하지 말라고 설명했다”며 “수리를 위해 학교에 공사를 요청했지만, 이번과 같은 큰 공사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수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화장의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학교에 보수 공사를 신청하고, 학교에서 보수 공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공사할 업체를 공개 입찰한다. 그 후 입찰된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비로소 공사가 시작된다. 이상원 팀원은 “최근에 입찰된 업체가 의화장에 있는 곰팡이 벽을 보기 위해 벽을 내려갔다”며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화장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어진지 오래된 의화장은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다. 화장실의 낡은 변기의 경우,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 노란 색으로 물들여져 있다. 그는 “의화장이 지어진지 약 35년이 돼가면서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됐다”며 “문제가

된 변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변기를 뜯어내고 안에 있는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혼자서 할 수 없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화장의 일정을 살펴보면 내부 수리 기간이 있다. 내부 수리 기간에는 무엇을 할까? 그는 “일정에 있는 내부 수리 기간에는 막힌 변기 뚫기, 방충망 수선 등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다”며 “그러나 곰팡이 벽과 변기 수리와 같은 규모가 큰 공사는 기간을 길게 잡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의화장의 관리가 어려운 이유에는 학생들의 잘못도 있다. 그는 “어떤 학생들의 경우 우리가 청소할 필요가 없을 만큼 깨끗이 청소하고, 제시간에 나간다. 하지만 퇴출 시간을 안 지키고, 이불에 토를 한 채 자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그는 “학생들이 제시간에 나가, 다음 팀을 위해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밥인 소우의 의화장을 학생에게 개방하자, 의화장이 학교 소유라는 생각에 함부로 쓰는 학생들이 있다”며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 주의의식을 가지고, 의화장을 써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신 기자 phstlan@hansung.ac.kr

# ‘캠퍼스 보험’ 알고 있나요?

학교 도서관 계단에서 깔려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보험은 일명 캠퍼스 보험이라고 하고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수업, 답사, 산악시찰, MT, 체육대회 등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이다. 학교에서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 학교에서 체육대회 축구시합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사고 △ 학교 수업 관련 실습(교수님 확인서 첨부) 중의 상해사고 등이 있다. 하지만 본인 과실로 인한 파쇄나, 집회로 인한 손해, 운동선수 중 등등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에 입은 피해는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종준(총무인사팀) 팀원은 “공식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치활동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가급적 이번 보험이 적용되게 하여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본인이 자필로 사고발생경위서를 작성한 뒤, 재학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종준 팀원은 “학생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총무인사팀에서는 이러한 서류들을 곧바로 보험사로 접수시킨다. 보험사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지난 학기에는 15명의 학생이 치료비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캠퍼스 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다. 이에 대해 이종준 팀원은 “예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후 페이지가 넘어가면 서 본인이 가려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재는 학생지원팀, 건강관리실, 시설지원팀 학교 시설과 연관된 행정부서와 학과장회의 및 교수 학사협의회에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하 기자 kmh77@hansung.ac.kr

### 등정란

**박호영(한국어문학부) 교수** 박 교수는 지난 8월 6일 중국 연변대학에서 열린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학술심포지엄에서 「일제강점기 혁명적 낭만주의의 이입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성우(행정학과) 교수** 이 교수는 지난 8월 25일부터 2011년 6월 24일까지 “조달행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 8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진입규제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제1세션과 제2세션의 사회를 보았다.

**홍명섭(회화과) 교수** 홍 교수는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에 출품했다. 이어 그는 지난 8월 20일 코리아-미국관에서 열린 울트라스킨에서 출품했고 9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의 심볼 해지 36작가전에 출품할 예정이다.

**엄종석(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엄 교수는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인 The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에서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A study Online Real-Time Strategy Game with Augmented Reality」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성훈(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정 교수는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Systems and Technologies"에서 「Selective Mutation for Genetic Algorithms」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태주(교양학부) 교수** 이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및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나은미(언어교육원) 교수** 나 교수는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회 전국대학생 토론회의 심사를 맡았다.

**이상혁(언어교육원) 교수** 이 교수는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제고려학회(중국 상하이 복단대학)에서 개최되는 제9차 코리아학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외국인을 위한 우리말 교육과 남북문제-남북 우리말 교육 및 교재 통일 편찬을 제안하며’를 발표했다.

### 간주인소식

## 도약의 첫걸음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

우리학교 사회교육원은 공식기관 명칭을 사회교육원에서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으로 변경했다.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으로 새롭게 명칭이 바뀌었다. 조중집(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 교학팀) 과장은 “각 과정의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평생교육원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은 디자인분야의 전공을 특성화하고, 일반인을 위한 비학위과정은 주로 자격증 반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교육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434호’에 의거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과정’과 ‘일반인(교양/전문/특별을 위한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그려도’, 열정의 결실 내보이다

우리 대학 교수 동호회인 그려도의 전시회가 지난 19일 인사동에 위치한 공화랑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모방, 그 너머 II’展으로, 그려도가 2000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갖는 두 번째 전시회다. ‘그려도’는 우리학교 교수 동호회로, 그림을 사랑하는 교수들의 진품 모음이다. 동호회의 일원인 이정숙 교수는 “그려도는 취미로 그림을 배우는 아마추어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려도를 소개했다.

그려도의 회원으로는 김숙자 교수, 문귀선(영어영문학부) 교수, 서영윤(영어영문학부) 교수, 이정숙(한국어문학부) 교수, 조인숙(지식정보학과) 교수, 황혜성(역사문화학부) 교수가 있다. 이번 전시는 김숙자(무용학과)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이정숙 교수는 “그리는 것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통한 여유가 우리들을 넉넉하게 해준다”며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가지고 싶다”고 말했다.

## 하계 확대간부수련회 열려

25대 ‘한성UPGRADE’ 총학생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청평 사조리조트에서 2009년 하계 확대간부수련회를 열고 총학생회 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계획등을 논의했다. 총학생회는 이 자리에서 상반기 사업 중 계획과기 교과목 개선, 분할납부 개선, 야간점등 실시 등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하반기 정책으로는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추진, 학기 초과과 등록금 완화 추진, 성적, 가사 장학금 대상 및 금액 확충 추진, 근로 장학금 확충 추진, 졸업유예 제도, 취업관련 강연 추진, 취업 페스티벌 활성화 추진, 운동장 주차문제 해결, 미래관 휴연문제 해결 추진, 학점이월제도 추진, 역학기 수강신청 개선 추진, 무료 건강검진 추진, 한철등 적립 추진,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 추진, 진리관 화장실 공사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기획안을 제출했다.

## 국토대장정 첫 발걸음 떼다

총학생회가 주최한 제1회 한성대학교 국토대장정 참가단은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에 걸쳐 전라북도 남원에서 경상남도 산청까지 지리산 둘레길 80km를 걸었다.

조성기(법대 4) 총학생회장은 행군코스 선정과 관련하여 “인원이 적은 탓에 차도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소지가 많아 안전을 위해 지리산 둘레길을 행군코스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래 7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신청인원이 대폭 줄어 총 참가인원은 35명이었다”며 “인원이 적어져 행사를 취소하려 했으나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대장정에 대해 조성기 총학생회장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으나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번에 진행된 제1회 국토대장정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지는 행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대장정 행사자료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정년퇴임 교수



윤석효(역사문화학부) 교수, 최승길(경영학부) 교수, 김숙자(무용학과) 교수

## 학술정보관 반박보도문

한성대신문 제426호에 실린 이어나 기자의 “우리는 진정한 저자를 만나고 싶다 : 학위를 ‘저자와의 만남’ 후 많은 아쉬움 나타내”라는 기사에 대한 학술정보관의 반박 보도문입니다.

먼저 기자는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저자와의 만남’ 담당자와 인터뷰 없이, 단독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이 기사에서는 2009년 5월 14일 학술정보관이 주최한 ‘저자와의 만남’ 행사에 대하여 학우들이 많은 아쉬움을 나타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자는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의 긍정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하여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첫째, 부정확한 통계결과를 사용하였고, 불만족 부분에 대한 통계만 부각하였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이후 학술정보관

에서 실시한 행사 만족도 설문조사 통계결과를 표현하는데 있어, 저자 선정에 불만을 드러낸 학우는 28.9%라고 하였는데, 실제 만족은 47%였고, 보통은 23.5%, 불만족은 29.4%였다. 강연 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불만족이 25.2%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만족 42.6%, 보통 31.6%, 불만족 25.8%였다.

둘째, 설문조사 내용 중 기타 의견 부분도 긍정적인 내용은 빠지고 부정적인 의견만 내세웠습니다.

셋째, 인터뷰 표본 추출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자의 소속학과인 학생 2명의 인터뷰를 포함하여 3건의 인터뷰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는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킴으로 보도가 편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공정한 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보직교원 인사

지난 7월 1일자로 보직교원 임명이 이루어졌다. 출판부장에 유재건(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에 김남윤(정보시스템공학과)교수,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및 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책임교수에 전종찬(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전공)교수, 산업시스템공학과와 대학원 산업시스템공학과 책임교수에 김대홍(산업시스템공학과)교수,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연계 전공과 대학원 디지털문화기술&콘텐츠학과 책임교수에 김진환(멀티미디어공학과)교수, 교양교직학부 교직과정 책임교수에 신재홍(교육대학원)교수,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디지털 중소기업경영학과 책임교수에 주형근(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8월 26일자로 인문과학연구원 장갑순에(지식정보학부)교수, 무역학과와 대학원 무역학과 책임교수에 최옥근(무역학과)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 2009년도 2학기 신입교원



**김용식**  
 ■사강대 경영학과  
 - 서강대 회계학석사  
 - 서강대 경영학박사  
 - 회계사  
 - 서울시청 전문계약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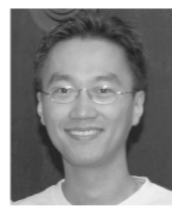
**김상봉**  
 ■경제학과  
 - 서강대 경제학과  
 - 서강대 경제학석사  
 - (미) Texas A&M Univ. 경제학박사  
 -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원



**채진미**  
 ■인류패션산업전공  
 - 서울대학교 가정학과,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N.Y 패션디자이너  
 - 서울대 가정학석사  
 - 서울대 생활과학사  
 - 복순 글로벌(주) 이사



**허준영**  
 ■컴퓨터공학과  
 -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 서울대 공학박사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후진**  
 ■정보통신공학과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 (미)TEXAS UNIV. OF AUSTIN 공학석사  
 - (미)TEXAS UNIV. OF AUSTIN 공학박사  
 - Freescale Semiconductor, Inc.



**디룩**  
 ■회화과  
 - Dirk Fleischmann  
 - (St)Stadtschule Art Academy 석사  
 - 프랑크푸르트 국립 예술대학 art coordinator



**채쿨린**  
 ■언어교육원  
 - Jacqueline Adamczewski  
 - (P)University of Montreal 석사  
 - Little Bridge Academy 영어강사



**로즈마리**  
 ■언어교육원  
 - Rosemary Duncan  
 - (남아)University of Cape Town, South Africa 석사  
 - 숙명여대 영어강사



**아비노**  
 ■언어교육원  
 - Avinoam Megidko  
 - (미)Univ. of California, Berkeley 학사  
 - 청담이학원 강사



**토마스**  
 ■언어교육원  
 - Thomas Stearns  
 - (미)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학사  
 - 동일초교 영어강사



**헤더**  
 ■언어교육원  
 - Heather Magnuson  
 - (미)University of Wisconsin-River Falls 학사  
 - 강원도 ESL 영어강사



**네긴**  
 ■언어교육원  
 - Negin Behpour  
 - (P)University of Guelph 학사  
 - 연세대학교 영어강사



**크리스틴**  
 ■언어교육원  
 - Kristin Marsh  
 - (미)University of Missouri 학사  
 - Wall Street 학원 강사



**카탄**  
 ■기계시스템공학과  
 - Cumhuriyet University 학사  
 - Cumhuriyet University 석사  
 - Bogazszi University 박사  
 - Bogazszi University Research and Teaching Assistant



두나의 사회 다큐

### 리베리온, 죽음으로써 고향

**두나 (대중문화 비평가)**

2006년 11월 23일,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었던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희귀 방사성 물질 '폴로늄 210' 중독. 그는 지금까지 꾸준한 연방보안국과 러시아 정부의 비리를 로해왔기 때문에, 의혹의 시선은 연방보안국과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했지만 아직까지 살인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훌륭한 미스터리의 소재이다. 하지만 리트비넨코의 절친한 친구였던 안드레이 네크라스프의 다큐멘터리 [리 벨 리 온 Rebellion: the Litvinenko Case]은 리트비넨코 사건의 범인을 찾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아니다. 그는 이미 범인을 알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연방보안국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의 목표는 리트비넨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푸틴과 연방보안국의 거대한 악을 폭로하려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리트비넨코는 단순한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 러시아를 정악한 이 거대한 악에 대항하다 숨진 순교자이고 그의 폭로는 그들을 향한 정치적 반란이다.

수많은 사실들이 폭로되고 그만큼이나 많은 가설들이 제시된다. 체첸

분리주의자들의 범죄로 알려진 1999년의 아파트 폭발 사건도 푸틴의 사주를 받은 연방보안국의 음모일 가능성이 크다. 체첸 전쟁은 민주주의 국가로 진화할 단계에 있던 러시아를 다시 부패한 불법 국가로 몰고 가기 위한 도구로 불과하다. 아.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콜롬비아 마약 밀매단의 공범자였고 기아에 시달리는 성 페테르스부르크의 시민들을 위한 구호금을 물려 빼돌렸다는 것도 이야기 하나?

네크라스프가 과연 이 주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리벨리온]에는 단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설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쿨함이 떨어진다. 영화는 분노라는 일차적 감정에 의해 만들어졌고 실제로 종종 그 때문에 신중함과 방정함을 잃는다. 영화는 제시한 가설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분노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네크라스프는 종종 자신의 가설에 도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마디로 말해 [리벨리온]으로 리트비넨코 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거리를 두고 영화를 보려 해도 우린 결국 네크라스프의 주장에 기울게 된다. 그는 세부적인 개별 범죄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 개별 범죄들을

포함한 거대한 그림의 존재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그걸 부인하기엔 그 그림들이 너무 친숙하다. 부당한 정권 유지를 위해 대중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자들, 부패한 절대 권력에 붙어 수족처럼 움직이는 국가 기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와 방송국의 문을 폐쇄하고 대중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 물론 이러한 정권에 맞서지 않는 대중의 비협조와 무심함 역시 언급된다. 이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에피소드는 푸틴 비판가인 저널리스트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와 관련된 비리 폭로 기사가 실린 잡지가 수많은 다른 매체들 사이에 묻혀 제대로 된 반응조차 얻어내지 못하는 현실을 직접 보여준다. 그리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폴리트코프스카야는 자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네크라스프는 영웅 숭배를 그의 도구로 선택한 듯하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최선의 길은 아니리라. 하지만 친한 친구가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자기 집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침입에 의해 엉망이 된 것을 목격한 남자가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

# 1인미디어, 넓어지는 블로그 세상

## 대안미디어로서 블로그의 가능성

컴퓨터 모니터 속 작은 블로그가 빠른 속도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시사 사이트 1위는 블로그를 기반으로 한 '허핑턴 포스트'(http://www.huffingtonpost.com)이다. 외국의 일만 이 아니다. 우리나라 각종 대형 포털에서 블로그는 이미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전문 블로그 미디어가 생겨남에 따라 하루 방문자가 수만명에 육박하는 파워블로거들이 생겨났고 블로거 기자단이 생겨났다.

황의홍(블로그연구소 '마실') 소장은 "블로그는 독립성이 확보되는 개인적인 공간인 동시에 사람들과 댓글과 트랙백(블로그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로 역방향 링크를 생성하는 기능)을 통한 쌍방향 무한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기자단 허영지(건국대 법학과3)문화부 기자도 "블로그 매체의 특성상,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기사를 쓸 수 있다"며 댓글, 트랙백등을 통해 네티즌들과 감성적으로 '공감'하고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반 기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작은 사건을 포착해 흥미로운 뉴

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며 블로거 뉴스만의 매력을 밝혔다. 블로그의 영향력을 의식한 대형 포털들은 블로거 뉴스 코너를 시작했고 정부부처, 기업, 언론사에 블로거 기자단이 생겨났다. 황의홍 소장은 "오히려 가상언론이 블로거 뉴스를 지면에 반영해 확대하고 재생산하기도 한다"며 "고소영내각", "강부자내각"도 한 블로거의 글에서 나온 재미있는 표현이 가상언론에 의해 알려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허영지 기자는 "워낙 블로거 뉴스 정보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뉴스가 많지 않다"며 블로거 뉴스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질적 저하를 지적했다. "기자단을 모집하는 단체 중 제대로 된 취재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며 기자단이 우수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황의홍 소장은 "혼자서 취재, 편집, 발행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취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기존 언론처럼 편집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성도 약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블로거 뉴스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는 편집방법과 집단지성에서 그 해

결점을 찾을 수 있다. 황의홍 소장은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블로거의 뉴스를 상위에 편집하는 시스템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블로거 뉴스의 신뢰도를 위해 학계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로거 뉴스는 '불완전의 미학'이다"며 "잘못된 정보는 인터넷의 자율정화기능에 따라 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미디어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블로거들의 소통, 곧 집단지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블로그는 기존 미디어를 보충해주는 역할 외에 그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보다 강화된 전문성이 그것이다.

황의홍 소장은 "예로 한 의사가 블로그를 연다면 그 블로그는 의학지식에 대해 언론사의 기자보다 훨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블로거의 콘텐츠가 선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허영지 기자 역시 "어떻게 특성화된 블로그는 시중의 가이드북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최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며 특성화된 블로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블로그로 야구 전문 블로거 미디어인 야구타임즈(http://www.yagootimes.com)등이 있다.

블로거 문화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블로그 문화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기업과 소수 언론사가 권력을 잡았던 정보화 시대에서 철저하게 개인이 권리를 가지는 후기 정보화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그 과도기에서 블로그는 기존 미디어를 보완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블로그는 편집되지 않은 개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투명성과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허영지 기자는 "블로그가 기존 미디어를 밀어내고 주류로 자리잡기는 어렵겠지만 독자적인 축을 구성해 점차 영향력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했다. 황의홍 소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블로거가 만든 콘텐츠가 더욱 선호될 것이다"며 블로그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세상 속 우리

## 취업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 '인턴'

### 현대 모비스 인턴으로 근무 중인 김봉수 씨를 만나

인턴은 취업으로 가는 여러 갈래의 길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빠른 지름길이라 불린다. 인턴은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전에 앞서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제도인데, 이때의 경험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면접 시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봉수(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4) 씨도 취업을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 인턴을 선택했다. 그해 11월 현대자동차의 부품 제조 및 수출을 담당하는 업체인 현대 모비스에 근무하고 있다. 그는 "취업을 준비하던 중,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관련 사이트에서 인턴 모집공고를 보고 도전하게 되었다"며 인턴 직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근무하다보니 내 전공과도 잘 맞고, 점점 흥미도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

약 50명 정도의 인원만 채용한다는 이곳에서 그가 당당히 인턴으로 채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우선 이론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

학점관리를 충실히 했고, 토의 공부도 900점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다. 또 가장 중요한 자기 소개서 작성에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그는 실전에 앞서 탄탄한 실력을 갖추게 됐다.

그는 "좀 더 실력을 높이고 싶어 1년 동안 어학연수도 다녀왔고 학교의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해외 탐방도 다녀왔다. 해외에서 보면 기간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이론적인 실력 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턴 직에 채용된 그에게 인턴 시 노력해야 하는 점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 평가라고 하는 평가서가 있다. 근무지 적응 능력, 일 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인데 나중에 취업 면접 시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고 인턴 평가서에 대해서 설명했다.

인턴을 하면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인턴으로 근무한 회사에 취업 준비를 하면, 인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덧붙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고, 회사의 분위기를 경험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인턴 직을 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무엇이든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턴은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로 기울일 수 있는 노력 중 하나이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에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취업 시 학벌보다는 다양한 실무 경험이 중요시되는 곳도 많다. 인턴 경험은 취업에 있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미라 기자 tvxq@hansung.ac.kr

### 낙산반평

류연수(애니제움 2)



##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학기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 한성인의 여론을 들읍시다

한성대 신문사는 한성인의 여론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론면에서는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한줄 댓글, 사진이야기 등의 기존 코너와 00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진행합니다.

생일축하 메시지, 학과 행사, 동아리 광고, 기념일, 분실물 찾기 등 학우여러분의 광고도 실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공지합니다.

사설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

얼마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다. 도로 상의 운행 중인 트럭이 매우 깨끗한 것을 보았다. 우리와 비교해 보니 매우 대조적이어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더러운 채로 트럭을 몰고 다니는 것은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고, 곧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다닌다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진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듯이 그들은 모든 일들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해서 보낸 서류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낸 답신을 받아보고 얼굴을 붉힌 적도 있다. 매사 신중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도록 일을 처리하는 습성 때문에 오늘날의 일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도서관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현대의 외관과 깨끗하고 잘 정돈된 내부 시설을 갖춘 도서관은 우리학교의 자랑이며 학생들이 자주 애용하는 건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담배 핀 흔적이나 흡연 중에 있

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언짢아지고 불편하다. 우리학교 체력 단련실 벽에 보면 이용자 수칙이 붙어 있지만 착용이 금지된 신발이나 맨발로 돌아다니는 학생이 여전히 있으며, 전산 실습실에 음료를 반입하는 것이나 학업과 무관한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 이는 학교 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혹은 이웃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빨리빨리 문화와 규정을 무시한 과속과 위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눈감아졌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웃 일본이라는 나라를 따라왔다는 일설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G20 선진 국가에 들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번 만남이 이 사람과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최대한의 관심과 배려를 베풀 때이다. 그 동안 쟁기지 못한 우리 이웃과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시간들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 자신의 작은 변화들이 사회에서의 큰 물결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번 돌아오는 새 학기에는 자신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취업제도 홍보 필요

경제 불황과 함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첫 번째 고민거리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취업에 도움을 주거나 각종 취업 설명회와 해마다 한 번씩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해 왔다.

취업설명회와, 취업페스티벌등은 좁아지는 취업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다 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지만, 해당 기업의 이력서 홍보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방학중에도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졸업반인 4학년 뿐만 아니라 신입생들도 취업준비를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 취업에 필요한 토익, 토플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학교측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열의를 알기에 지난 학기에 학우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카페도 신설했고, 취업 사이트도 취업 지원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난 18일에 있었던 학사협의회에서도 총장은 "학생 성공 교육을 모토로 내세우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업지원팀에서도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방학중에 운영하던 취업전략 아카데미를 학기 중에 진행하기로 했고, 단계별로 취업강의를 나누어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 취업을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학생들의 참여율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홈페이지에 있는 취업정보 시스템중에도 취업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지만 학우들의 이용횟수가 적은 편이다.

취업 정보 시스템에서는 채용정보, 인턴십 및 공모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학우들의 참여가 미진하다.

그러나 참여율이 낮은 것은 학생들만의 탓이 아니다. 학교에서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학우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과 학우들에게 취업에 대한 생각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피그말리온 효과

우윤환

(기계시스템학과 교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피그말리온이란 인물이 있다. 키프로스 섬 여인들의 방탕하고 문란한 행동에 탄식하며 독신으로 혼자 살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는 스스로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고 이 조각상이 마치 자신의 진짜 연인인 듯 몰래 입맞춤도 하면서 그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조각상에 정성을 다하여도 조각상이 그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할 리 없었고 그는 점점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중 아프로디테 여신의 축제일에 간절히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조각상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올리게 된다. 이러한 그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한 아프로디테는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어 들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현대의 심리학과 연계되어 <피그말리온 효과 (pygmalion effect)> 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간절히 열망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을 교육심리학에 적용시킨 예가 있다. 1968년 하버드 대학교 교수 로버트 로젠탈은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의 학생을 뽑았다.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그 명단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라 믿고, 그에 맞는 기대와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놀랄게도 모든 학생들이 지능지수와 관련 없이 학업성취도가 월등하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름을 따서 이를 <로젠탈 효과>라 부르고 있으며 타인을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을 보이면, 그 기대나 관

심으로 인하여 능력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심지어 무생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에모토 마사무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물이 얼었을 때의 결정모양이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험잡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조개지고 또렷하지 않은 모양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은 우리의 성공 가능성 또한 높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유난히 비도 많았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된다. 늘 그렇듯이 우리 학생들도 새 학기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계획과 실천이다. 물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새 학기에 세운 목표를 위하여 치밀하게 계

획하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묵묵히 실천에 옮긴다면 첫눈이 내리는 학기말에는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무수히 많은 결정의 순간을 맞게 된다. 이러한 결정에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중대한 결단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모든 결정 또는 결단의 결과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매 결정의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한 줄 댓글

2학기에 실천하고 싶은 계획은?

강병우 (산공 1) [2009/08/18 13:39] 공대고귀고 나도 캠퍼스 커플할래요

"취업" 이거 말고 또 할말이 있을까요?

CC들을 비롯한 초식남이 될래요. 남의 시선이나 평판에 신경쓰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한학기가 되도록 노력하고싶어요.

2학기때는 1학기때처럼 어영부영 시간 보내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하고 탄탄한 복근☆와 탄력있는허벅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운동할게요. 살릴리지 않는 제기차기춤을 춥니다.

김진호 (산시 3) [2009/08/18 13:53] 1학기때 골목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2학기때 모두가 놀랄만한 학점을 받고 싶습니다!

소가는 (국문 3) [2009/08/19 00:46] 언제나 즐거운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제 개인적인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졸업반이 코앞이라 걱정이 많네요. 한성학우 여러분 모두 화이팅!

안은지 (멀티 3) [2009/08/20 00:07]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성공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앞선 2학기를 보내고 싶어요.

한준미 (경영 1) [2009/08/26 10:58] 다른CC들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캠퍼스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장하극! 기대하세요!! ^^

김우석 (영어 2) [2009/08/18 14:46]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며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명수 (경제 2) [2009/08/19 09:04] IEL.TS 7점 획득과 영어 프리토킹, 수영 배우기 그리고 항상 미래를 생각하기 하하하\*\_~\*

김한영 (산공 2) [2009/08/20 05:35]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겠다는 결심으로 더이상 수학으로 끝머리 썩지 않게 수학의 마스터가 되겠어요!!

'한줄댓글' 관련 게시물은 '낙산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임민화 (행정 3) [2009/08/18 17:36] 비록 수강신청은 땀겨운 영어회화공부 혼자서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친절하게 길안내해주고 한성대학생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학교 많이 알아주셨지요.^^

김용상 (행정 1) [2009/08/19 09:50] 군대가기전에 학점이나 잘받아야 할거 같아요...

오연석 (의생활 1) [2009/08/21 01:11] 모든 CC와 그의 커플들을 시크하게 비웃고 싶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부럽고 이번엔 좀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좀 잘 받고 싶습니다.

제427호 당첨자는 지식정보학부 이상혁 학생입니다.

이상혁 (지정 2) [2009/08/18 21:18] 지각과 졸음으로 점철된 1학기를 벗어나서 누가봐도 성실했다는 평을 나 자신도 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2학기 계획입니다. 그래야 성적도 잘 나올테지요

신경석 (행정 2) [2009/08/19 17:45] 동기들이 모두 군대를 간 관계로 고독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야 할 듯 하지만 군입대 전 마지막 학기로 더욱 자기개발에 매진하는 한학기로 만들렵니다.

이동희 (경영 4) [2009/08/21 13:18] 한성에서 맞게되는 마지막 학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취업의 길을 잘 닦아놓고 싶어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배가 돼야죠 ^~^ 그리고 한성대 취업준비생 파이팅입니다~~~

강호윤 (기계 4) [2009/08/18 21:30]

여성욱 (행정 3) [2009/08/19 19:03]

송수인 (지정 1) [2009/08/25 17:32]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 2009학년도 제2학기 수강생 모집요강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및 창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루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양을 쌓아 삶의 질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생활 속에 스포츠를 접목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양인과 특정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하여 양질의 교양강좌, 자격증과정, 생활과 스포츠, 취업 및 소자본창업, 최고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1. 등록 및 접수  
- 기간 : 8월 24일부터 9월 11일 까지 접수  
-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수강신청 후 온라인입금으로 수강료 납부( http://edulife.hansung.ac.kr/ )

2. 장소  
장소 :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 (해학역 4번 출구)

3. 문의할 곳  
- 홈페이지 : http://edulife.hansung.ac.kr/  
- 전화 : (02) 760-5781~2

\* 강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폐강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수강 취소 및 환불은 한성대학교 규정에 따릅니다.  
\* 본교 대학생은 교육훈련지원비로 수강료의 50% 지원 (단, 80%이상 출석, 모든 강좌가 해당하지는 않으며, 해당 강좌는 한성대학교 교육훈련지원금 운영 내규에 따름)  
\* 교직원 : 전 강좌 수강료 50% 할인 (본인 및 자녀 50%, 배우자 30% -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구분	강의명	수강료	기간	수강기간	시간	특전사항
자격증 과정	캘리그래프 산업기사 준비반	400,000	8주	9/15-11/5	화, 목 19:00~22:00	자격증 취득 시까지 재수강 가능
	패션머천다이징 산업기사준비반	400,000	8주	9/15-11/5	화, 목 19:00~22:00	자격증 취득 시까지 재수강 가능
	피부미용사자격증속성반(필기,실기)	1,050,000	12주	9/14-12/4	월, 수, 금 18:00~21:00	자격증 취득 시까지 재수강 가능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400,000	8주	9/15-11/5	화, 목 19:00~22:00	자격증 취득 시까지 재수강 가능
	실내건축산업기사	400,000	8주	9/15-11/5	화, 목 19:00~22:00	자격증 취득 시까지 재수강 가능
	국제표준(T자)CDL 준비반	150,000	6주	9/15-10/22	화, 목 19:00~22:00	자격증 취득 시까지 재수강 가능
	국가공인 한자급 준비반(A)	90,000	8주	9/21-11/27	월, 수, 금 18:30~21:30	자격증 취득 시까지 재수강 가능
	국가공인 한자급 준비반(B)	90,000	8주	9/22-11/26	화, 목 18:30~22:00	자격증 취득 시까지 재수강 가능
	어린이 한자 자격증	170,000	10주	9/16-11/20	수, 금 17:00~18:30	자격증 취득 시까지 재수강 가능
	워드프로세서 1급	150,000	8주	9/14-11/6	원격교육	3개월 동안 수강 가능함
생활과 스포츠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0,000	8주	9/14-11/6	원격교육	3개월 동안 수강 가능함
	한성 테니스(기초반/중급반)	200,000	12주	9/19-12/5	토 10:00~12:00	
	A.K. 요가 전문과정	300,000	12주	9/18-12/4	금 19:00~22:00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강증 발급
	한성 골프 초보자과정	300,000	12주	9/14-12/4	추후협의(1주일에1회2시간)	
취업및 소자본창업	아동 미술 실기 지도사	400,000	12주	9/15-12/3	화, 목 18:00~21:00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강증 발급
	예쁜 글씨 pop 레터리스트	150,000	8주	9/19-11/7	토 9:00~13:00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강증 발급
	네일아트 취업반	800,000	12주	9/14-12/4	월, 수, 금 19:00~22:00	
	커피전문가 교육과정	400,000	12주	9/18-12/4	금 14:00~17:00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강증 발급
	도선문인화작가양성교실 (초,중,고급)	300,000	15주	9/18-12/18	금 10:00~13:00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강증 발급
	수채화 (초,중,고급)	300,000	12주	9/18-12/4	금 13:00~16:00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강증 발급
	한국전통민화화 (초,중,고급)	300,000	12주	9/22-12/8	화 10:00~13:00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강증 발급
	만화 (초,중,고급)	300,000	12주	9/16-12/2	수 18:00~21:00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강증 발급
	와인 기초반	200,000	8주	9/19-11/7	토 10:00~13:00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강증 발급
	가타 초보반	200,000	12주	9/20-12/6	일10:00~13:00(인원미달시시간30분씩 두번으로나누어진행함)	
교양강좌	헬빙댄스 (댄스스포츠)	210,000	12주	9/15-12/1	화 19:00~21:00	
	영어회화 입문	150,000	8주	9/16-11/5	수, 목 19:00~20:30	
	물론	300,000	12주	9/14-12/4	별도문의 (주1회2시간)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강증 발급
	가타 초보반	200,000	12주	9/20-12/6	일10:00~13:00(인원미달시시간30분씩 두번으로나누어진행함)	
최고지도자	미용아트 최고경영자 과정	3,000,000	1년	9/15-2010/9/14	화 오전10:00~16:00	한성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강증 발급

사람을 만나 20대의 예비 청년 창업가 도종희 학생을 만나

“잃을게 없을 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의 기술 창업 분야에 최종 합격한 총 79명 중에는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도종희(법미 3) 학생의 이름도 있었다.

도종희 학생은 프로젝트에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가했다. 그를 비롯한 팀원들은 모두 멀티미디어공학과 조세홍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연구소’에 속해 있다.

심사 때는 학생이라는 점과 열의 있는 모습에 합격을 시켜준 것 같다”고 미소를 지었다. 도종희 학생이 낸 창업 아이디어는 모바일 인맥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도종희 학생은 “제품 기획과 메뉴 구축,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 회의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핸드폰 회사와 연계해 기능을 넣을 것 인지, 다운로드 콘텐츠로 활용할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종희 학생은 2학년 때부터 학업과 연구소 일을 병행해오고 있다. 그는 “모든 과정들

이 막대한 나머지 중간에 휴학을 한 번 할까 생각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집에 들어가길 포기하고, 입주일 중에 4-5일을 학교에서 지내다 보니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도종희 학생은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처음에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작했는데 나중이 되니 마음가짐이 틀려졌다”며 “협력업체와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니 잘 해보아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dogiluve@hansung.ac.kr

기자수첩

깨끗한 의화장, 보고 싶다

학교 오피스나, 동아리 수련회가 있을 때, 자주 가는 의화장은 법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다.

처음 의화장의 사용료는 무료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의화장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겨났다. 의화장에 있던 물건들이 사라지고, 고장 나면서 관리 비용이 증가한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의화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리자에게 의화장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 물어보니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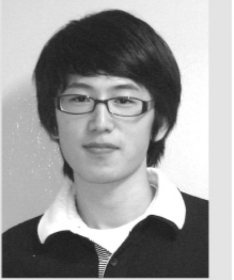
하지만 시간이 가지 않는 시세, 먼지 낀 창틀을 보면 ‘관리 부족’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나 의화장의 문제는 학교의 관리 부족만이 아니었다.

창틀을 보면 ‘관리 부족’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나 의화장의 문제는 학교의 관리 부족만이 아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의화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리자에게 의화장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 물어보니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학교측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따질 수가 없었다. 의화장을 사용하는 우리부터가 의화장을 그렇게 대하는데 누가 의화장을 깨끗하게 관리해줄까..?

박형신 사회부 부장



대학원 인터뷰 월드바디페인팅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최희경, 박주희 원생을 만나

아시아 최초 바디페인팅 월드 위너를 만나

인체를 캔버스 삼아 화려하게 펼쳐지는 바디페인팅의 세계. 그 세계무대에서 두 명의 아시아 최초 위너가 탄생했다.

유럽 오스트리아 시보텐에서 시작한 월드 바디페인팅 페스티벌은 세계 40여 개국 200여 팀이 참가한 큰 행사다.

선후배이자 사제관계인 두 원생은 주인공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었다.

두 원생이 좋은 성적을 거둔 본선작은 ‘Spirituality-beyond the visible world’(영성)이라는 주제의 작품이다.

비너와 흰 천, 보살과 연꽃등으로 주제를 표현했다.

수상이유에 대해서 최희경 원생은 “홍콩, 중국 등의 다른 아시아 팀에서 서양 분위기로 작품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리엔탈 분위기가 우리 작품에 눈에 띄었던 것 같다”

유명한 바디페인팅 아티스트들이 전부 모여 치르는 큰 행사인 만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예술인만큼 모델들과의 호흡도 중요하다. “작년에 출전했을 때 함께 작업한 모델은 뛰어난 구사해 힘들었지만 이번 모델은 영어가 통해 견결 편했다.

라 우리가 무대에 데뷔시켜 준 셈이다”며 웃기도 했다.

바디 페인팅은 일반인들에게 낯설어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예술 장르이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에서 만난 사람

식당에서 취업준비생인 김정훈 학생을 만나

하계방학이 시작된 지 꽤 지났는데도,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눈에 띈다. 공모전 준비, 동아리 활동, 취업 준비 등으로

김정훈 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보니 식사도 주로 학생식당이나, 친구들과 인근 식당에서 먹게 된다”

그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솔직히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전공을 살려 금융업계에, 은행에서 일하고 싶다”

김정훈 학생은 2학기를 끝으로 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초년생이 된다.

이에 대해 김정훈 학생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

김정훈 학생은 방학 중에 도서관에 나와 공부하면서, 자신이 목표한 것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김정훈 학생은 “주관적으로 말하는 좀 그렇지만, 다른 것들보다도 공부하는 자기 노력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이종재 기자 dogiluve@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09년 8월 31일(월요일) ~ 9월 4일(금요일). Table with columns for date, meal type, and food items with prices.

가 로 세 로. A grid-based puzzle with clues and a solution key. Includes a list of clues and a grid with numbers 1-7.

# MIT 강의, 집에서 공짜로 듣는다

## KOCW, Youtube EDU를 이용한 평생 교육

대학 강의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교육자료 공개 운동(이하 OER 운동)에 의해, 대학 강의를 무료로 듣는 시대가 찾아왔다.

OER 운동의 시작은 미국 MIT 대학이라 할 수 있다. 미국 MIT OCW(=OER 동업)는 전 세계 지식 선도 및 고등교육 소의 계층에게 봉사 위한 목적으로, 2001년부터 MIT 개설 강좌를 인터넷에 무료 공개했다. 현재 MIT에서 공개한 강좌는 1,900여개(09년 5월 기준)에 달하며, 월평균 방문자수가 200백만 명 이상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동영상 포털 사이트인 유튜브에서는 09년도 3월에 'Youtube EDU'라는 공간을 만들어, 무료 교육 채널을 보급했다. Youtube EDU(3월말 기준)에서는 2만 여개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 중이며, 학과 전공에 필요한 200여개의 전 과목 동영상상이 올라와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재택(고등교육정보) 팀장은 "인터넷에서 대학 강의 공개하는 건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이렇게 공개한 대학교 강의는 그 대학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며, 평생 교육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의 OER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07년도에 만들어진 KOCW로 국내 강의 콘텐츠 200개, 해외 강의 콘텐츠 150개를 제공하고 있다.

유재택 팀장은 "KOCW는 고등교육 이니셔티브 콘텐츠를 통해, 고급 교육정보를 교류하는 학습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라며 "KOCW의 공간에 있는 공개 강의를 통해 학습자는 자율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 만들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학습자들끼리 협력 활동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KOCW에서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하 WCU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WCU에는 현재 4명의 노벨상 수상자의 강의와 세미나가 올라왔으나, 후반기에는 5명의 강의를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WCU의 강의와 세미나에서는 한글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는 "한글 자막이나 한글 대본을 제공하지 않는 건 오역을 피하기 위

해서이다"며 "하지만 영어 대본을 제공하니, 강의를 보면서 영어 대본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KOCW가 가야하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강의 공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 사회는 폐쇄적이라, 외국과는 달리 자신의 강의를 올리려는 교수들이 부족하다. 하지만 서로의 강의를 공유하면서, 더 좋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수들의 자료 공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에서는 교육 자료 공유가 교수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을 부른다고 생각해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그는 "강의 공개를 통한 이러한 경쟁은 교수들에게도 득이 된다"며 "교수들은 서로의 강의를 보고, 비교하면서 자기 강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학 강의를 질적으로 향상돼 학생들은 좋은 강의를 듣게 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유학을 가지 않아도 KOCW와 같은 공간에서 외국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KOCW와 같은 곳을 이용해, 세계의 다양한 강의를 듣는 학생과, 그렇지 않고 자기 대학 강의만 공부하는 학생은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다"며 KOCW와 같은 곳을 통해 다양한 학습을 하길 기대했다.

그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글로벌 인재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국내에 한정된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를 향한 시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시선을 가지는데는 KOCW와 같은 곳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위에서 설명한 KOCW의 주소는 <http://www.kocw.net> 이 곳에 들어가면 국내외의 강의 콘텐츠와 WCU의 강의를 볼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해외 대학 강의를 보고 싶다면, <http://www.youtube.com/edu>로 접속해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박형신 기자 phstlan@hansung.ac.kr



# 시간의 박물관

사람들은 엄마를 마녀라고 불렀다. 엄마에게 어울리는 그럴듯한 별명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엄마가 마녀라고 불리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살아간다는 게 결정적이었다. 여기에 분위기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엄마는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수십 개의 주름이 잡힌 플레어스커트 자락이 바닥을 스치고 지나가면 미세하게 먼지가 일곤 했다. 커다랗고 움푹 파인 눈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한밤의 우물 같았고, 자잡한 주름이 가득한 얼굴과 희고 긴 손가락, 몇 센티미터는 불 거져 나온 쇠골에 작고 날렵한 발가락들. 그리고 휘우 들한 콧날과 새빨간 입술이 더해져 어찌 보면 섬뜩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간혹 반백의 머리카락이 바람을 타고 흔들리거나, 두 팔을 벌리고 바람을 맞을 때면 진짜 마녀처럼 보이기도 했다.

험한그림한 집에 단둥이 남게 되면서 엄마가 쓰레기를 향해 말을 건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정원이었지만 지금은 잡초가 무성한 뜰에서 커다란 새리 빛자루를 든 엄마를 보게 시작되었다. 무어라 나직하게 증명하려는 말과 보슬거리는 비와 시커멓게 하늘을 메운 구름, 그리고 습기 서린 바람 따위가 어우러져 기이한 형상을 이루던 날이었다. 가까이 다가가기 보나 엄마가 빛자루에 말을 걸고 있었다.

한 삼십 년도 더 된 얘기지요, 그게? 아유, 그때에 비하면 무척 젊아지셨죠.

그리고 어깨를 들쭉이며 커다랗게 웃었더랬다. 내 키가 몇 센티미터씩 훌쩍 커지고 턱 주변에 검고 부드러운 수염이 자라나면 시절에도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났다. 가령 아버지의 만년필을 향해 '펜촉 끝이 벌어졌네요. 그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겠지요.'라고 한다든지, 외할아버지의 벨트를 꺼내놓고 '살이 다 헤지셨어요. 늘 사람의 손때가 묻어야 하는 건데.'라는 식으로 몹시 상냥하게,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듯이 말이다.

익숙해진다는 건 곧 길들어지는 것인지, 나는 어느 날부터가 엄마의 행동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흔들거리는 앉아 있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도심의 동물원에 갇힌 늑은 얼룩말처럼 팔다리가 길었다. 그 긴 팔다리만큼이나 매번 느리게만 움직였다. 엄마의 손가락에 감긴 것은 빨간색 실이었다. 빠르게 움직이는 유일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처럼 뜨개질을 하는 순간일 것이다. 뜨개질을 쥐고 있는 손바닥은 빠르고 오묘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 동안의 시간이 훌쩍 사라져버렸다.

엄마의 뜨개질은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 코가 꺾여지면 일 초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었다. 그 시간이 쌓여 그녀의 일상을 메우는 일 뿐이 되고 심 분이 되었다.

엄마의 하얗고 기다란 열 개의 손가락들이 실 새 없이 움직였다. 빨간색의 날실과 씨실의 만나는 곳에 엄

마의 눈은 여전히 불박어 있었다. 어쩌면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길고 긴 머플러가 아닐까 생각했다. 마루에 깔린 바닥을 빈틈없이 메우고도 남은 부피였다. 나는 바닥에 펼쳐진 푸근하고 알뜰답뚝한 양털 이불에 내 몸이 꼭 파묻혀 버둥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시 어깨를 떨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장면이어서 나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내버려 둬, 아이들이야.

엄마가 뜨개질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손님일 수도 있잖아.

나는 엄마를 흘려보며 말했다. 요즘 그녀는 심까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일에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아이들이 장난치는 거라니까.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

내가 말했다. -마음대로 하셔.

엄마의 대답은 여전히 심드렁하지만 했다. 나는 마루 밑으로 내려서다 말고 다시 발을 거뒀었다. 바닥에서 발을 땀 때마다 오래된 나무 마루가 뒤뉘리며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엄마와 함께 오랜 시간을 버태온 집이었다.

엄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앞서 내다보는 엄마를 대할 때마다 기분이 묘해지고는 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어두운 지하실에서 주문을 외우며 쓰레기들에 영혼을 불어넣는 장면이 자꾸만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또 어깨를 떨었다.

엄마가 뜨개질을 바꾸기에 넣고 가지개를 켜다. 관절이 퍼지고 우두둑 소리가 났다. 바닥에는 머플러의 커다란 뭉치가 깔려 있었다. 엄마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것들을 상자에 넣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퐁퐁, 도마질 소리에 경쾌한 리듬이 실려 있었다. 고등어를 굽는 지고소한 냄새가 코를 스쳐갔다.

햇살이 창문 밖으로 서서히 몸을 점으며 물러나는 늦은 오후였다. 부엌에서 새어나온 푸른 연기가 집안을 메워가기 시작했다. 나는 마루에 누워 사방을 둘러보았다. 벽면에 즐비한 상자들과 색색의 봉지를, 엄마 지나지 않아 마루도 쓰레기들로 가득 찼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형스러운 것은 엄마가 밖에서 물건들을 주워오지는 않는다는 집이었다.

몸을 반쯤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낡은 창틀을 조용히 흔드는 바람에 집안의 연기가 한줄기의 하얀 선을 이루며 밖으로 뿜어나갔다. 주방의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모로 누웠다. 창문을 가렸던 물건들을 다른 쪽으로 치워놓은 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다 낡아빠진 레코드 같은 노래였다. 스트릭,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엄마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다면, 늘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세계를 눈앞에 마주한 기분이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다. 편안한 파동이었지만, 나는 조금 우울해졌다.

(다음 회에 계속)



채현선 작가

### 약력

- \* 동국대학교 문예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졸업.
- \* 2009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아칸소스테기〉로 등단.
- \* 문예지에 〈모퉁이를 돌면〉, 〈마누 다락방〉, 〈나의 글루미선데이〉 발표.

# 디지털 정보의 천국, '국립디지털도서관'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개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내 국립디지털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에서 책 중심의 정보를 얻는 것처럼, 디지털도서관은 온라인 콘텐츠 중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는 오픈라인 공간인 정보광장(Library Information Commons)을 갖추었다.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립디지털 도서관 전경

정보광장의 디지털열람실, 미디어센터, 복합상영관 등은 대학생이 이용하기에 여러 모로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디어센터의 영상·음향·UCC스튜디오는 촬영용 블루스크린과 마이크, 캠코더, 카메라, 랩톱 등 각종 디지털기가 준비되어 있어 이용자가 장비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포토샵 등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된 최첨단 컴퓨터가 바로 앞에 구비되어 제작한 미디어 자료를 그 자리에서 편집할 수 있고 디지털도서관 내에 전시할 수 있다. 디지털총괄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은 이곳에 와서 동아리 홍보 영상 등 각종 홍보영상을 제작하

고 모의면접을 위한 동영상 자체적으로 촬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미디어센터의 세미나실은 학회를 열거나 간단한 학술모임을 준비하기 좋다. 디지털총괄기획과는 "무선인터넷 연결이 편리한데다 전자책판과 LCD모니터, 빔프로젝터가 한 자리에 준비되어 있어 각 대학 학회의 이용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이 시설들은 사전예약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열람실에서는 책상 하나에 대형모니터와 여러 개의 다중모니터를 한 자리에 비치해 다양한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기

획과 관계자는 "모니터가 세 개이므로 각종 편집 프로그램을 한 번에 띄워 편집과 문서작업을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합상영관 역시 기존 도서관의 상영 시설과 달리 개인과 단체별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 넓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보광장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각종 보조공학기구와 노령 사용자 편의시설이 마련된 전용공간인 도움누리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바닥의 턱이 낮고 보청기나 시각 확대장치 등을 두고 정보소스계층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온라인 사이트인 디브리리 포털은 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많은 학습자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사이트이다. 디지털총괄기획과의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필요하지 않은 상업 정보들이 많이 나열되지만 디브리리 사이트에서는 좀 더 학술적인 정보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디브리리 포털의 자료는 대부분 저작권에서 자유롭지만 일부는 디지털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도서관은 기관 특성상 저작권에 큰 구애 받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회귀자료는 디브리리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디브리리 포털은 지역, 다문화, 정책정보, 장애인 포털이라는 카테고리 나뉘어 원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예로 지역포털은 각 지역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 즉 각 지역의 문화제, 문화시설, 축제정보 등을 상세히 검색할 수 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신간도서안내

# 전환기, 한국 노동시장의 길을 묻다.

| 2009. 7 | 304p | 23,000원

저자 : 박 영 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맘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취업 제수, 삼수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체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50대뿐 아니라 40대도 직장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은 강력한 노조의 보호아래 제법 rahat하게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비정규직법 개정 소동에서 보듯이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야당, 노동계는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할 뿐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서울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노동정책에 활발한 자문활동을 하여 온 필자는 지난 10여년간 언론에 기고한 글들을 토대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 및 대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필자는 1994년의 기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에도 기고당시의 상황들은 진행형이고 제시한 대안들도 의미가 있다. 과거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 노사관계는 적대적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근원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3년간 유예되어 2010년에는 시행될 예정인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금년 하반기에 노사관계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10년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뒤흔친 금융위기 그리고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나아갈 길을 묻고 있으나 향후 방향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확고하다.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거품이 확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부문의 근로자, 양적 팽창을 지향하는 대학이나 교육정책, 비정규직의 희생위에서 보호받는 정규직 근로자 모두 개혁과 선진화의 대상이라는 것을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있다.

낮은 임금이라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직업이 없는 상황보다는 바람직한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제한과 같이 비정규직 보호조치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해고를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러나 필자는 노동시장의 거품빼기, 유연성 제고는 정부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비전 제시 및 적극적 통합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200여건의 10여개의 주요 일간지의 기고문 및 언론용 기사 글을 토대로 노동시장 현안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전환기, 한국 노동시장의 길을 묻다'가 지금까지 나온 노동시장 정책관련의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다. 필자는 노동경제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강의 교재로 집필을 시작하였으나 진행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교양도서로 집필방향을 바꾸었다.

한성대학교 출판부

# '일석이조' 재능기부의 특별한 매력

## 선행도 베풀고 기업이미지도 높일 수 있어

요즘은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가 자연스러워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기업이 가진 기술, 능력 등을 이용한 '재능 기부'가 바로 그것이다. 재능 기부는 기업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마케팅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 형태이다.

재능 기부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 8월부터 복권위원회, (주)나눔로또,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와 전자복권협회가 공동주관한 '2009 대국민 달란트(재능) 기부' 이벤트가 있다. 이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재능을 기부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우형(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관은 "복권판매대금의 약 42%가 저소득층·소외계층 복지증진사업이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복권기금으로 따로 조성된다. 이는 여러 공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이벤트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국민 의 인지도

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2009 대국민 달란트 기부' 이벤트는 어떤 재능이든 기부가 가능하다. 편의상 교육, 번역, 상담, 수화, 미용, 의료, 예체능, 집수리, IT, 공연 등의 10개 분야로 나누어 놓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부된 재능은 기부자의 거주지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등의 사회공헌기관을 통해 지역 자원봉사센터로 정보가 전달된다. 그리고 향후 그 지역에서 관련 봉사자가 필요한 경우에 달란트 기부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능 기부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이우형 사무관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부라고 하면 고액의 기부나 재산의 사회 환원 등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돈과 같은 '물질'의 기부가 아닌 개인이 가진 능력을 기부하는 것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 복권위원회에서는 이

번 이벤트를 통해서 재능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과급효과를 기대했다.

'2009 대국민 달란트(재능)기부' 이벤트는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는 제1회로 8월 3일부터 9월 18일 까지 7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후형 사무관에 따르면 이벤트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난 지금의 달란트 기부자 수는 약 800명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란트 기부자의 수가 더 이상 늘지 않아 추가적으로 이를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진행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대국민 재능 기부 이벤트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기부의 방법이 있음을 알리고 싶다"고 말하며 "예비 기부자들은 뭔가 특별해야 봉사활동 할 수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버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어려운 이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재능 기부가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부담 없이 재능 기부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양한 교육지원에 초점을 맞춰 재능 기부를 실천하는 단계도 있다. 재능 기부로 유명한 단체인 도너스

캠프가 대표적인 예이다. 도너스 캠프는 CJ 나눔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나눔터다. 운영 방식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전국 각지의 공부방, 지역 아동센터가 교육프로그램을 도너스 캠프 홈페이지에 요청해온다. 그러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후원자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하고, 도너스 캠프는 기부금을 보태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지원은 학업지원, 문화체험, 몸 튼튼, 마음 튼튼, 긴급지원의 5개 영역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다.

김희영(나눔재단코디네이터) 팀원은 "최근 도너스 캠프는 문화체험으로 2007년 10월부터 불로거 24명과 함께 공부방을 섬외해 조플렛 만들기 교실, 옛 만들기 체험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올 5월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해 재능 기부의 현장을 UCC로 제작해 재능 기부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며 도너스 캠프의 현황을 설명했다.

2009년 8월 기준으로 도너스 캠프의 총 기부자는 2만 1천명이고 자원봉사를 하는 회원들은 15만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모인 총 기부 금액은 33억원에 달한다.

올해 4주년을 맞이한 도너스 캠프는 29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조각공원에서 '나눔이 있는 음악 소풍'이라는 주제로 4주년 기념 축제를 개최했다. 그동안의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1만명 이상의 기부를 하면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라 기자 tvxq@hansung.ac.kr



▲ 도너스캠프의 후원으로 문화교실에 참여한 아이들



#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세가지 기부

## 시장경제 딜레마의 아름다운 해결책

###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

기업의 기부문화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거액을 기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 마일리지 등을 이용한 기부까지 그 방법이 다각화되고 있는 것. 기업의 사회공헌은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사회공헌연구소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기업은 실업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사회공헌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공헌을 위한 기업 재단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몇몇 대기업들이 경영전략으로서의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선진국 못지않은 왕성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방법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원들이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기부금을 내면 회사도 이 금액만큼 일대일로 후원금을 내는 사회공헌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의 1%를 모아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면 회사에서도 1억원을 마련해 총 2억원의 기부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8월 '사랑의 빛펀드'라는 이름으로 삼성SDI가 가장 먼저 시도한 바 있으며 LG전자, CJ등 다른 기업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자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해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다. 신한카드와 대한생명 등이 그 기업이다. 아름다운 재단의 기업사회공헌팀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05년 6월 기부 전용 사이트 아름다운 오픈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 고객은 신한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부수적으로 부여되는 포인트나 카드 결제로 원하는 기부처에 후원할 수 있다. 신한



▲ 새로운 기부의 형태 'Be the bridge'

'Be the bridge' 팻지를 배포하여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Bridge)'가 되자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인터넷을 통한 기부도 활발하다. NHN과 아름다운 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피빈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온라인 기부 아이템인 '해피빈 쿠폰'으로 손쉽게 기부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으며 카페나 블로그에 붙여 온라인 이웃들과 함께 기부할 수 있는 '봉저금통' 시스템 등을 통해 지금까지 13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이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코리아 설문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기부 경험 후 '항후 계속

기부하고 싶다'는 응답이 100%에 달했다. 기업사회공헌연구소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이렇게 활발해진 이유에 대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인 및 일반국민의 인식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92%는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한 기업에 호감을 갖고 있고 그것이 소비자의 구매동기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의 확산은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박중구 소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빈부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정부의 개입은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기업사회공헌은 빈부격차해소와 비효율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예술이 밥 먹여준다

최근 국내에서 나눔과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과 전시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품전시회와 예술·문화공연으로 낸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부터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티켓이나 좌석을 기부하는 것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기독 작가들의 모임인 아트미션은 매년 회원들의 작품으로 정기전시회를 연다. 이들은 미술작품을 판매하여 낸 수익금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케이블 TV 온스타일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기증한 작품을 경매로 내놓아 수익금을 베푸는 행사인 '아트 도네이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들 말고도 각종 사진전과 작품전을 통해 수익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기부해 언론에 소개되는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작품전의 성격에 따라 세계빈민어린이나 장애인부모회 등 수혜자도 다양하다. 이런 까닭에 문화·예술과 접목한 기부 형태가 기존의 기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문화·예술 기부문화 중에는 공연 기증이라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관람객이 티켓 값을 돈이나 물품으로 지불해, 소외계층의 공연관람 비용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증된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되어 같은 목적으로 쓰인다.

아름다운 가게 이혜빈 기증사업팀 간사는 "대

부분 기부는 현금으로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지만, 기증도 기부라고 할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즐거움을 느끼며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나눔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공연 기증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4일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아름다운 가게의 문화 나눔을 후원하는 뷰티풀파트너 협약식을 맺었다. 그 일환으로 의정부예술의전당은 '희망티켓-행복스폰서' 캠페인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희망티켓이란 관람객에게 천원에서 만원까지 자유롭게 지불하도록 해, 저렴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의정부예술의전당측이 마련한 제도이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로비에 행복스폰서 모금함을 설치해, 공연을 본 관람객들이 만족한 만큼 돈을 모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모금액은 불우이웃의 공연관람 비용으로 쓰인다.

이혜빈 간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거라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참여도 미약하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화공연과 같이 소비자들의 재미와 트렌드에 맞는 요소를 찾는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며 "우선 '희망티켓-행복스폰서' 캠페인은 올해 12월까지 연계하기로 계획이 잡혀있고, 앞으로는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앞으로의 문화나눔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혜빈 기자 dogluve@hansung.ac.kr

# 우리의 문화재 더 이상 혼자 두지마세요

## 문화재도 보살핌이 필요해요

한 여학생이 불교 미술사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국보 제59호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에 쌓인 먼지를 총채로 털어내고 있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이 탑비는 건조된 지 900년도 더 되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석조 문화재이다. 이런 문화재를 쓸고, 닦고, 가꾸는 이은정(차이과고등학교 3학년)은 문화재청이 위촉한 문화재 지킴이이다.

문화재 지킴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킴이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은정양은 "문화재 지킴이는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활동이다"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만족감을 느낀다"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소개했다.

또 문화재청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문화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사이트에 회원으로 신청해, 간단한 교육과 행정 절차를 거쳐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될 수 있다. 문화재청 감인식 활용정책과 전문위원은 "문화재 지킴이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다"며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의 소유자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된 사람은 주기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글이나 사진으로 마이페이지에 남기면 된다. 문화재 주변을 청소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부터, 문화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유적의 경우 빗자루로 낙엽을 쓸거나, 문풍지를 새로 바르거나, 잡석 사이의 잡초를 제거하는 활동을 한다. 또 문화재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잡목, 벌레가 무리지어 뜯는 짐승을 제거하는 것도 문화재 지킴이의 몫이다. 그 외에 문화재의 관람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찾는다면, 관람 문화를 평가하여 보고하는 일도 할 수 있다. 또 따로 시민단체에 신청해 방문객들에게 1일 문화재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다.

문화재는 종류도 많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문화재 지킴이들의 활동은 천차만별이



▲창덕궁에서 이뤄진 협약지킴이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

다. 문화재 지킴이가 되어 지킬 수 있는 문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청 가능한 문화재에는 종목별로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등이 있고, 소재지별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창덕궁 같은 궁궐뿐만 아니라, 하늘다람쥐나 각종 동·식물과 같은 천연기념물까지 지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문화재 지킴이는 자신이 신청한 하나의 문화재에 한해서만 문화재 지킴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또 이들은 지킴이 활동 내용과 범위를 문화재청의 협의에 따라 통보 받게 된다. 활동을 할 때도 관리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거친 뒤, 문

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문화재 지킴이는 총 1,266명이다.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개인지킴이, 가족지킴이, 단체지킴이, 협약지킴이가 있다. 개인지킴이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 하에 개별로 지킴이 활동이 가능하다. 단체지킴이는 학교·병원 같은 단체가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된 것으로,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시민단체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재 교육을 하고 있다. 협약지킴이는 기업체가 협약을 맺고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60세 이상 노령의 봉사자를 일컫는 '실버 문화재 지킴이'와 청소년을 뜻하는 '파라미터 문화재 지킴이' 등 여러 형태의 문화재 지킴이가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올해 6월에 '헝게미 탐지견' 인견공이 공로를 치하 받아 '우수 문화재 지킴이'로 뽑히기도 했다.

강인산 전문위원은 "문화재 가꾸기를 희망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게끔, 문화재 지킴이란 제도를 만들어 기회를 주고 있다"며 "문화재 지킴이 활동의 가장 큰 의의는 진정한 문화재의 주인 된 모습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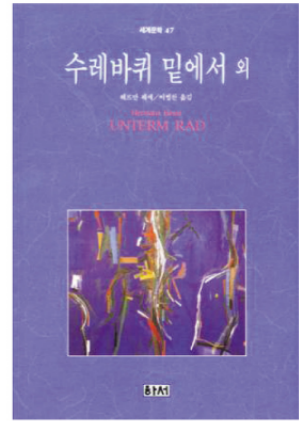
현재 문화재청은 국민의 참여를 지향하는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킴이의 가입 신청은 <http://kimichacolr>에서 할 수 있다.

이종재 기자 dogilive@hansung.ac.kr

## 헤르만 헤세의 젊은 날의 방향을 다룬 소설

### '수레 바퀴 밑에서' 읽어본 작가 이야기

헤르만 헤세의 '수레 바퀴 밑에서'라는 책은 작가 자신의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다. 헤르만 헤세는 이 책에서 한스 기베라트라는 인물로 묘사되어 등장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한스 기베라트는 조그마한 도시에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낚시를 즐기고, 토끼와 자연을 사랑하고 섬세한 감정을 지닌 소년이다. 또한 한스는 공부도 잘하는 아이여서 그의 아버지를 포함해 마을 사람들, 목사님, 학교선생님들의 기대를 받고 자랐다. 그는 마을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자랐다.



지막에 가서는 언제나 이런 말을 듣거든, '제군은 이 시인이 얼마나 멋진 표현법을 썼는지를 알았지요. 이 집에 있어서 제군은 시적 창작의 비밀을 알게 되었겠지요.' 라고 말이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내겐 호머 전에도 빼앗기는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시의 교육현실을 말했다.

그의 총명함 때문에, 마을 사람은 그가 보통의 아이들과는 달리 신학교에 입학하게 될 거라고 믿었다. 당시 신학교는 천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또한 그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기에 신학교 입학학을 강요했다. 선생님과 또한 그를 신학교에 보내기 위해 많은 과제들을 내주고 공부를 가르쳤다. 그러자 그는 평소 애써서 하는 낚시를 못하게 되었고, 키우던 토끼마저 빼앗기게 된다. 대신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수학, 라틴어와 같은 공부에 몰두했다. 한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 생활을 빼앗긴다고 불누하고, 저항하거나 투정부리지 않고 매일 밤늦게까지 오직 신학교에 들어간다는 목표로 공부만 한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는 신학교 입학시험에서 차석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된다. 입학 이후에도 그는 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우수한 성적을 자랑했다. 그리고 공부 잘한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뿌듯해했으며, 자신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열등한 존재로 생각했다. 그러나 한스는 신학교 동기인 하일러에 의해서 삶에 많은 변화를 맞게 된다. 헤르만 하일러 역시 똑똑해서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였지만, 늘 중간중간의 성적에 만족하면서 공부에 열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생활을 즐겼다. 즉 한스는 반대되는 아이였다. 한스는 이런 작품을 보관하던 경매와 빚집 등의 유물 100여 점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한스는 하일러와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둘은 다른 학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하일러는 신학교를 탈주한다. 남겨진 한스 또한 하일러와의 이별을 겪으면서 심할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고, 괴로운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신학교 생활로 한스의 성격은 떨어졌고, 결국 신학교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한스는 엠마라는 소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엠마가 떠나게 되면서 사랑에도 실패한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 한스는 아버지의 강요로 한스의 친구인 아우구스트가 다니는 기계 공장의 견습공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기계공장에서 그는 "신학교 입학 시험을 치른 대장장이"라는 조롱과 놀림을 받으면서 받으면서 하루 종일 시계의 톱니바퀴 닦는 일을 한다. 그러던 어느날 아우구스트가 근사하게 한 잔 자는 제한을 받고, 한스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고 술자리에 가게 된다. 술에 취한 한스는 물에 빠져서 죽게 된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스는 총명하고 감성 깊은 아이였으나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한스는 학교의 성적에 대한 지나친 요구에 견디지 못해 학교를 나오게 되지만 사회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한스에게는 톱니바퀴가 신학교 생활과 같은 또 하나의 수레바퀴였고, 교육과 사회라는 수레바퀴 밑에 깔려 죽어가는 극단적 상황까지 간 것이다. 비록 몸은 신학교에서 벗어났지만 세상도 한스를 함께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헤르만 헤세의 세상과 많이 비슷하다.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밤을 세우며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성적 때문에 울고 웃고, 심지어 수능점수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는 교육현실이기에 때문이다. 종종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적에 많이 열매이고 있다. 한스처럼 자신의 개성과 적성에 맞지 않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책을 읽어 한 자 되겠다는 구약적인 날 때까지 고집 되풀이하거든. 그리고서는 시간의 마

# 화장 문화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

## 화장 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 여성들에게 화장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의 화장 문화는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사동에 위치한 코리아나 화장품박물관(space\*c)에서는 옛 사람들의 화장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코리아나 화장품박물관은 '한국 옛 여인들의 화장 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는 취지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장박물관이다. 화장박물관은 코리아나 화장품의 창업자인 이상옥 회장이 40년간 모아온 5,300여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신사동 화장박물관은 2003년에 space\*c 내에 별도로 설립되었으며, 화장 문화에 관한 다양한 전시와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pace\*c 박물관에는 남녀 화장도구를 비롯해 화장장기, 장신구 및 생활문화와 관련된 유물 3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전(코리아나 박물관) 학에서는 "전시된 유물들을 통해 한국 화장 문화의 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 천연화장재료와 제조도구를 함께 전시해 체험의 기회도 마련했다."며 박물관을 소개했다.



▲ 전통 화장 문화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박기분'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덧붙여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장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5층과 6층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에는 5층에서는 화장 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6층에는 특별전시실을 마련해 1년에 2번씩 화장 문화와 관련된 소장품 테마전을 개최한다. 5층의 전시관에서는 시대별로 한국의 전통 화장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전 전시 학에서는



"한국의 화장 문화는 뛰어난 화장기술과, 화장용기를 볼 수 있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됐다."며 전통 화장 문화의 근원을 소개했다.

이러 "고려시대는 불교문화의 발달로 인해 더욱 화려하고 견고한 화장용기를 제작해 사용했다. 그리고 유교문화가 강조된 조선시대에는 사치스러운 화장을 금지했기 때문에 검소한 화장 문화가 발달했다"며 "19c말에는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우리의 화장 문화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현재의 화

장 산업과 문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6층의 특별전시실에서는 '조선과 에도여인의 머리꾸밈'이라는 주제로 테마전이 열리고 있다. 조선시대와 일본 에도시대의 여인들의 머리장식들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미의 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머리장식으로는 머리술이 많이 보이기 위해 흔히 사용한 가래를 비롯해 비녀, 뒤꽂이, 찹지 등의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머리장식뿐 아니라 화장품을 보관하던 경매와 빚집 등의 유물 100여 점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에도시대의 유물로는 마키에 빗, 펄잡, 비녀와 같은 머리장신구들과 에도 여인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소개되어 있다. 더불어 일본의 경매와 조선시대의 경매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어 둘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은 일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로 나와 CGV극장 뒷편 일방통행길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전미라 기자 tvxq@hansung.ac.kr

## Holic

# “리우따웨이의 인물화의 세계”



마치 살아있는 사람 보는듯한 생생한 표정과 인물의 움직임은 열은 담채와 먹을 사용하여 적절히 포착해 내고 있는 작가 '리우

따웨이'는 현대 중국화를 대표하는 작가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작가다. 중국 현대회화를 대표하는 장르로 산수,

인물, 화조화 부문을 들 수가 있는데 리우따웨이는 수묵인물화와 채색동물화의 두 방면에 걸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1945년 산둥성에서 출생한 그는 인물화 묘사와 표현에 대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 화단에 등단 한 이후 중국 현대인물화 부문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그는 중국인민대표자회의 위원의 한 사람이자 중국화단을 대표하는 중국미술가 협회주석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세계화단 각처에서 전시를 갖는 등 정확한 인체묘사력과 수묵담채기법이 혼용된 독특한 인물표현기법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필수 그는 윤기 있고 부드러운 동양화 붓을 이용하여 세밀한 표현력과 현장감 넘치는 사생능력을 바탕으로 인물, 말, 낙타, 개 등과 같은 인체와 동물들의 개성 있는 표정과 동작을 생동감있게 그려온 작가다.

짧은 시간 안에 대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해내는 민첩력과 능숙하게 색채의 농담을 조절해내는 원숙한 기량은 그의 작품 세계를 특징 지우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작품 <파미르고원의 결혼식>은 작가의 이런 조형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장지위에 먹과 담채색이 어우러진 현대인물화로 중국화의 전통법과 현대적 감각이 잘 융화되어있으며 중국 내 소수 민족의 혼례식 장면을 거침없는 필치로 그려내어 잔치의 즐거운 흥취를 실감 있게 전해 준다.

중앙아시아지역의 이국적 풍물이 화면에 가득 담겨있는 이 작품 속에는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필선과 맑고 부드러운 색감, 자연스러운 인물과 낙타의 표정이 살아 숨쉬는 작가 특유의 조형 감각이 화면 곳곳에 스며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영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 사진이야기



볼학기때 찍었던 축제 사진입니다. 한학기가 지나긴했지만 다이나믹하고 멋진무대와 그때의 들렸었던 마음을 추억하며 한번 보내봅니다^^ 강의동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공중에서 운동장을 바라보니 야경이 참 멋지더군요.

이재원 (영어영문 3)